

한 증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중 증보 사업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6, 27)

“우리의 증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인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재하고 계시는데 (직역):영은 태초로부터 흘리신 당신의 피를 바치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을 위하여 탄원하시지 않으시며 우리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기도와 참회를 자아내며 찬송과 감사를 불러일으키신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은 (직역): 영이 기록하신 기억력으로 영혼의 심금을 울려 마음의 음악을 상기시킨 결과이다.” (1 가려 344)

어떤 이들은 위의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 말씀을 가지고 증보자가 두 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울과 화잇 부인은 이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영감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서 증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바울은 같은 장-롬 8:34 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직역:증보)하시는 자시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강조한 딤후전 2:5 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직역: 증보)하심이니라” (히 7:25) (히 8:6; 9:15; 12:24 참조)

화잇 부인도 결코 성경과 반대되는 글을 쓰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은 글들을 기록하셨다.

“개인적 성격에 속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증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고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요일 2:1). 229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고백해야 한다. 공공연하게 범해진 죄는 모두 공개적으로 고백되어야 한다.” (치료봉사 228,229)

“이 장(章)은 그리스도의 사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묘사하고 있다. 요한은 자신의 주제(主題)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요한은 고귀한 진리의 거룩한 광선을 마치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빛나게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증보자로 증거하였다.” (1 가려 246)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을 향해 열려 있던 문은 닫혀졌다. 그들은 참된 희생 제물이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유일한 증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증보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쟁투 430)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이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 장 26 절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증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영감을 넣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언어로 하나님께 올리신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영이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후 3:17)

다음의 예언의 신 문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아버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심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준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의 통로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의 이름, 우리의 대언자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나갈 수 있다. 그의 영은 우리의 기도에 영감을 불어넣어야만 한다. 어떤 다른 불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었던 향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받아들여질 만하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그 불붙는 갈망을 불러 일으키셔야 한다. 우리 속에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직역:중보)하신다.” (리뷰 1897-2-9)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우리 속에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 되는데 그 한 통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 곧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불붙는 갈망을 일으키신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기도에 영감을 주신 후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 우리 기도를 올리신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한편 (직역:)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분은 육안에서는 사라지시나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20) 하신 약속은 성취된다. 그분께서는 당신보다 낮은 교역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시지만 활력을 주는 그분의 임재는 아직도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 (소망 166)

위의 말씀에 의하면 봉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곧 주 예수이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두 가지 중보 사역을 하신다. 곧 하늘에서는 육체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중보하신다. 그러니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같은 예수님이시다. (골 1:27; 3:11, 갈 1:16, 요 6:56, 요 14:17,18,20,23, 요 15:4, 요 17:23, 롬 8:10, 히 2:17,18 등 참조) 이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의 육체로가 아닌 곧 그의 영을 통해서인데 이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서 육신(요 1:14)과 영이 (고전 15:45, 고후 3:17)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두 분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오직 한 분이 계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가려 뽑은 기별 1 권 344 쪽의 말씀에서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신 것일까? 위의 말씀에서 선지자는 성령이 그리스도와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또 성령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두개의 전선에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성경과 선지자가 그동안 쓰셨던 다른 말씀들이 일치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취하신 육신으로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한편 또한 그분 자신의 영으로 지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예 영감을 주시며 회개와, 감사, 찬양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한 손으로 지상에 있는 죄인들을 붙잡으시는 한편 **다른 손으로**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으시므로 우리를 위해 화목을 이루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서계신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한 중보자**이시다. (10 월고 177.1)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 : 25). 성전의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不在)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한편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분은 육안에서는 사라지시나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20) 하신 약속은 성취된다. 그분께서는 당신보다 낮은 교역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시지만 활력을 주는 그분의 임재는 아직도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 (소망 166)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이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소망 805)

“세족 예식이 거행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마음에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EV 27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당신께 복종케 하시는가? 그것은 오직 그분의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이며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인간의 마음을 진리로 감동케 하신다. (1 SM 134)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전 6:17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8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 6:44, 65 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딤후 3:5,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 4:6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곧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자신의 중보 하는 영이다.